



리빙
아트 &
냅킨 아트



소재따라 손길따라 무한변신 나만의 개성 입히는 무한매력

냅킨 그림 오려 붙이기
초보자들도 쉬운 공예

스펀지 찍기·오버랩...
다양한 기법 응용
작품 변신 자유자재

음식을 먹을 때 옷에 흘리지 않도록 사용하는 냅킨이 새로운 예술작품으로 변신을 시도했다. 일명 ‘냅킨 아트’, 전문 용어로 ‘냅킨 데쿠파주’를 통해서다. 프랑스어로 ‘자르다, 오리다’는 뜻을 가진 데쿠파주는 종이를 오려 붙여 가구나 소품 등을 장식하는 기법이다.

18세기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진 데쿠파주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냅킨 아트로 불린다. 예쁜 그림이 인쇄된 냅킨을 오려서 가구나 가방, 유리, 시계, 신발 등에 오려서 붙이는 공예다. 활용도가 높고 고급스러운 작품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초보자들에게 호응받는 공예이기도 하다.

“냅킨아트의 매력은 내안에 숨겨진 무한한 예술성을 꺼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소재에 따라, 또는 만드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게 냅킨아트의 매력이지요. 재활용품이나 반제품 위에 나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작업은 행복한 힐링입니다.”

광주 화정동에서 ‘공예술훈’을 운영하고 있는 오은서(56)씨는 디자인을 공부하던 중 3년전 냅킨아트와 인연을 맺으며 공방까지 차리게 됐다. 이후 캘리그래피나 석고 방향제, 팬시 우드, 펠트공예까지 냅킨 아트와 접목시킬 수 있는 모든 공예를 섭렵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말처럼 냅킨아트는 냅킨을 오려 붙이는 걸로만 끝나는 공예가 아니다.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그림을 이어 그려주기도 하고 사진을 덧붙이는 폴라주 기법, 가루 반짝이와 하이크로시(고광택)를 냅킨 위에 뿌리거나 얹어줘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작품이 탄

생하기도 한다.

추가되는 재료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기법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 스펀지로 찍어서 표현하는 스펀징 찍기, 두 개 이상의 냅킨을 겹쳐서 표현하는 오버랩, 냅킨을 가위로 오리는 대신 태워주기, 천에 표현하는 직물 기법, 석고를 발라서 표현하는 핸드코트 기법, 유리에 냅킨을 붙이는 유리기법, 갈라지는 느낌을 표현하는 크랙 기법 등이다.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작업으로 연필꽃이를 만들어 보기로 한다. 먼저 반제품으로 나온 MDF(합판)에 바탕제(젯소)를 발라준다. 붓을 이용해 결 따라 한 방향으로 칠해야 한다. 뭉치지 않게 고루 펴바르는게 중요하다. 젯소를 초벌제로 바르는 이유는 물감의 색을 잘 받게 해주고, 약품 처리를 해줌으로써 제품이 오랫동안 보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젯소를 바른 다음에는 드라이기를 이용해 말려준다. 젯소도 원재료에 따라 한번 바르기도 하고 말린 다음 두세번씩 덧발라주기도 한다. 젯소가 잘 말랐다면 사포질을 한다. 질감이 거친 젯소를 부드럽게 해주고 다음 작업을 할때도 깔끔하게 마무리되는데 필요한 과정이다. 사포질이 끝나면 물티슈를 이용해 가볍게 닦아준다. 여기까지가 초벌작업 마무리다.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입히기 전에 해야할 것이 메인 재료인 냅킨을 고르는 일이다. 냅킨 컬러에 따라 물감 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냅킨은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원하는 무늬로 선택할 수 있다. 냅킨을 고른후 그림대로 잘라준다. 작은 제품에는 무늬가 작은걸 선택하는게 도움이 된다.

가위로 오래낸 냅킨은 맨 위 그림이 그려진 부분만 남기고 떼어낸다. 일반적으로 냅킨은 3겹의 종이로 구성돼 있다. 냅킨 무늬에 어울리는 컬러의 아크릴 물감을 골라 제품 전체에 고루 발라준다. 아크릴 물감의 장점은 빨리 마른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물감 바를 때 사용하는 붓은 바로바로 씻어주는게 중요하다.

이제 냅킨을 붙일 차례다. 글루(의료용 접착제)를 냅킨 붙일 위치에 발라주고 그 위에 오려진 냅킨을 가볍게 붙인다. 물티슈를 이용해 냅킨이 울지 않도록 가만히 누르면서 제품에 밀착시킨다. 너무 세게 누르면 냅킨이 망가지기 때문에 주의한다. 냅킨이 마른 다음 다시 한 번 붓에 글루를 묻혀 발라준다. 제품과 냅킨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바탕에 쓰였던 컬러의 물감을 스펀지에 묻혀서 가볍게 눌러준다. 물감이 모두 마른 다음에는 마감제(바니쉬)를 발라준다. 작품이 벗겨지거나 상하는 걸 막아주고 습기에도 강하다. 바니쉬는 그림 뿐 아니라 제품 전체에 고루 발라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성 잉크를 바른 스탬프를 이용해 맛을 더해주면 완성된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냅킨아트 공예가 오은서씨가 냅킨을 오려 붙여 만든 연필꽃이를 들어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갤러리 리채, 다시 문 열었다

김창덕씨 새 관장 선임... 4회 지역작가 공모전
20일~26일 ‘윤희매, 찻잔에 잠기다’ 올 첫 전시

지난해 12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며 지역민들의 아쉬움을 샀던 갤러리 리채가 윤희매(輪回梅) 작가 다음 김창덕(51·사진)씨를 신임 관장으로 선임하고 다시 문을 열었다. 갤러리 리채는 지난 2012년 광주시 남구에서 처음 문을 연 민간 갤러리로, 연중 6회 기획 초대전을 열며 젊은 작가들에게 전시공간을 무료로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갤러리는 올해부터 공모전 형식으로 지역작가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간 4회의 공모전을 개최해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창작지원금 200만 원과 현수막, 팸플릿 등 홍보를 제공한다. 김씨가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학연·지연을 떠나 공정하게 작가들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전과 같이 개인전, 단체전 등 초대전도 진행한다.

김창덕씨는 “그동안 혼자서 작업에만 매달렸었는데 지역작가들과 교류도 하고 대외활동도 늘리기 위해 관장직을 맡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젊은 작가들의 자존감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갤러리는 올해 첫 전시로 김씨의 개인전 ‘윤희매, 찻잔에 잠기다’를 20일부터 26일까지 준비했다.

김씨는 남원 출신으로 14세 때 출가했다가 지난 1999년 환속한 예술가로서 많은 이력이 있다. 지난 1996년 조선시대 실학자 이덕무(1741~1793)가 집필한 ‘윤희매’를 접한 이래 윤희매 작업에 정진했다. 윤희매는 밀랍으로 빚어 만든 인조 매화다. 김씨는 약 7년 전부터 남구 양림동 이장우 고택 사랑채를 작업실 겸 다실 등으로 사용하며 작품활동을 해왔다.



‘윤희매’

그동안 미국 뉴욕 UN본부 전시(2007),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공연(2014),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엔날레(2015) 등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백매, 홍매, 흑매 등 김씨의 대표작 15여점을 만날 수 있으며 20일 오후 5시 개관 행사 때는 해금연주자 강은일이 공연한다. 또 김씨가 ‘도산의 달밤에 매화를 읊다’를 주제로 그림자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진안홍삼주에서 만든 술 ‘윤희매’ 시음행사도 마련했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역 문예지 계간 ‘문학춘추’ 겨울호 나와

지역에서 발행되는 문예지 계간 ‘문학춘추’ 겨울호(통권 93)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기획 특집으로 1951년 6·25 전쟁 당시 우리 지역에서 창간된 유일한 ‘신문학’ 잡지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신문학’은 1951년 6월 창간돼 1953년 5월 제4집으로 종간된, 전쟁 중에도 발간된 우리 지역의 종합문예지다. ‘신문학’ 창간호와 제2호는 2015년 한림출판사에서 영인본으로 출간한 바 있다.

조선대 백승언 교수가 ‘신문학’ 1호부터 4호까지를 대상으로 잡지의 의의와 경향 등을 분석했다. 당시 ‘신문학’에는 김현승, 변학도, 김해서, 손철, 이가영, 전병순, 이석봉, 노천명 등의 작품이 게재됐다.

다른 기획특집으로 작년 작고한 문壇 선인의 삶과 시 세계를 다뤘다. 허소



미 평론가가 문학을 매개로 현실 세계에 참여했던 문인들의 작가정신과 울곧았던 삶을 조명했다.

또 다른 기획특집에서는 윤삼현 동화작가가 1950년대 호남지역에서 아동문학의 첫 씨를 뿌리는데 이바지했던 최상옥 시인의 문단서적 의의와 작품에 내재된 동심을 분석했다.

이밖에 ‘초대작가’로 박진환 시인을 다뤘으며, 이준배 시인의 계간 시평, 한상훈 교수의 문학평론이 실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016 광주일보 스키캠프

2016년 1월 27일(수) ~ 28일(목) 무주리조트

모집대상 : 초 · 중 · 고등학생
참가비용 : 195,000원
제공사항 : 숙박(가족호텔 1박), 3식 제공, 스키렌탈, 스키강습 2회, 리프트이용권(후야권, 오전권), 스키장 보험 및 여행자 보험, 왕복차량

※ 일반부 : 별도 문의

1월 27일(수)	1월 28일(목)
08:00~08:20	06:30~
08:20~11:30	기상 / 세면
11:30~12:00	07:30~08:30
12:00~13:00	즐거움 아침식사
13:00~17:30	08:30~12:30
17:30~19:00	장비대여 / 스키강습(리프트포함)
19:00~21:00	12:30~13:00
22:00~	장비반납 / 점심식사
	13:00~16:30
	인원 점검 후 출발
	16:30~
	귀가

※ 스키복, 보드 렌탈시 본인부담

주최 |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 투어넷 여행사
문의 | 062-225-2544, 062-220-0555